

BKL ALUMNI NEWSLETTER

2023 Vol.11



BKL focus

BKL spotlight

BKL news

Alumni news

“태평양의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해보다”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
“BKL 2U (Bringing Korean Law to you)” 개최

bkl

CONTENTS

BKL focus

04 '태평양의 사람들' 출간 기념식

BKL spotlight

08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
“BKL 2U(Bringing Korean Law to you)” 개최

BKL news

12 BKL,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12 BKL,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12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전문팀' 신설
13 영입소식
15 수상소식

Alumni news

15 Alumni 동향

bkl

BKL ALUMNI VOL.11

BKL은 Alumni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올 한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과 건강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BKL Alumni News letter'를 모바일 · PC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평양의 사람들’ 출간 기념식

태평양의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해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9월 21일 태평양 창립 변호사와 소속 고문단의 이야기를 담은 ‘태평양의 사람들’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태평양의 창립을 이끈 역대 창립대표, 집행부 변호사들과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태평양에 합류한 고문단, 태평양 임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출간을 기념했다. 태평양의 시작을 함께한 대표 변호사부터 앞으로의 태평양을 이끌어갈 구성원들이 모여 서로 반가움을 나눈 이날의 분위기는 태평양의 치열했던 성장 기록과 굳건한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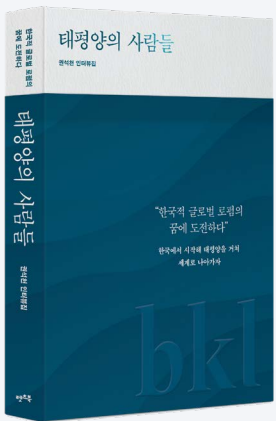


지난 9월 21일 열린 ‘태평양의 사람들’ 출간기념식

태평양의 『삼국지』와
『수호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왜 『삼국지』이냐고요?
“좋은 로펌을 만들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였던 창업세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자 인사 말씀 중인 권석천 고문



지난 9월 발간된 ‘태평양의 사람들’ 책 이미지

‘태평양의 사람들’은 태평양을 탄생시키고 이끌어온 변호사들과 고문들의 이야기를 JTBC 보도총괄을 역임한 권석천 고문이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낸 책으로 법인 설립 43주년을 맞아 기획 및 출판되었다. 책에는 변호사 및 고문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고군분투해온 이야기들과 ‘한국적 글로벌 로펌’에 도전해온 태평양의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있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태평양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인 서동우 변호사는 “태평양의 도약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며 “특히 ‘인재경영’, ‘가치경영’, ‘선진제도경영’을 3대 지표로 삼아 ‘한국적 국제 로펌’을 지향한다는 창업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오신 선배, 동료 변호사들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여러 외국변호사, 비변호사 전문직, 경제고문과 전문위원들께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법률서비스의 경계를 넓혀오지 않았다면 태평양의 DNA인 ‘프론티어십(frontiership)’과 ‘고객중심’ 정신이 제대로 꽃피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태평양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남겼다.



출간기념식에 참석한 이정훈 명예대표변호사

이날 기념식에서는 창립대표인 김인섭 대표, 이정훈 대표가 축사를 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임 후 2017년부터 BKL 경제고문으로 활동중인 신제윤 고문이 축사를 이어갔다.

김인섭 대표는 “1980년 제가 처음 사무실을 열면서 ‘Lawyer is good neighbor(변호사는 좋은 이웃)’를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러한 저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여러분과 함께 밤새워 토론했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 결과 이렇게 창대한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책에는 ‘우리의 헌법’, 즉 저와 여러분이 태평양의 정체성과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담겨있고, 우리는 태평양의 헌법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태평양이 한국 법조계의 모범이 되는 대표 로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구성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대표는 “1986년 12월, 김인섭 변호사님, 배명인 장관님, 이재식 변호사님, 황의인 변호사님과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 합동법률사무소’의 문을 열면서 ‘로펌다운 로펌’, ‘한국적인 국제 로펌’을 만들



1~2 행사 진행 사진



출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겠다 다짐했던 것이 떠오른다”며 “지금 태평양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고, 또 태평양의 구성원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고, 태평양의 3대 경영철학과 ‘고객중심’ 가치를 계속해서 실천해주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신제윤 고문은 “이 책은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태평양 고유의 제도와 가치를 안착시켜온 증인들, 제2세대 대표변호사님들의 회고록으로 치열한 해외 경쟁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나간 기업가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태평양의 사람들’ 발간을 자축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언젠가 우리 후배 태평양 식구들의 노력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일등 로펌이 되는 날, 영문판으로 발간되는 ‘태평양의 사람들 II . People of BKL, the success story’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진 변호사는 “‘태평양의 사람들’은 태평양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능해보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한다”며 “책의 출간이 태평양 법인을 넘어 한국 법조계와 한국 사회의 역사를 채워주는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아낸 ‘태평양의 사람들’ 기념식에서 구성원들은 다시 한 번 태평양의 눈부신 도약을 다짐했다.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리셉션

“BKL 2U” 개최

(BRINGING KOREAN LAW TO YOU)

“BKL 2U” 행사 진행 사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11월 30일 싱가포르 문명 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에서 세미나 및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현지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태평양을 알리겠다는 의미를 담아 “Bringing Korean Law to you”의 앞 글자를 따 “BKL 2U”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다.



1

올해로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현지에 상주하는 양은용 변호사, 예반테오 외국변호사, 서울 본사의 허경욱 고문, 양시경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최훈 싱가포르 대사를 비롯해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현지

에서 관심과 인기가 높은 떡볶이, 막걸리 등 K-푸드를 마련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며 한국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증명하듯 준비된 음식을 비롯해 참석자들 간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오고 가는 모습이었다.



1~3 한식 кей터링 현장



싱가포르에서 열린 태평양 세미나에서 허경욱 고문이 한국의 경제 및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축사를 맡은 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동남아 지역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기능하면서 앞으로의 한국과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며 “태평양의 싱가포르 사무소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태평양, 더 나아가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가상자산 규제, 한국의 경제 및 규제 동향 등을 주제로 태평양 김지이나 변호사, 손지영 외국변호사, 윤주호 변호사, 허경욱 고문의 발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싱가포르 현지 기업 관계자는 “최근 싱가포르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고려할 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할 분야에 대해 BKL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특히 마지막 연사인 허경욱 고문의 마무리 세션이 감동적이었다”며 “BKL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지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4

5



6



7

4~7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세미나와 리셉션
8 행사가 진행된 장소 인근의 야경



8

한편 태평양은 2021년 8월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해 올해로 2주년을 맞았다. 싱가포르 사무소는 그동안 현지의 해외직접투자, M&A 등의 프로젝트는 물론 소송, 국제중재 업무까지 밀착 지원하며, 나아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되는 여러 사건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DGB금융지주 등 금융사와 한국 주요 데이터 기업인 KT의 싱가포르 기업 지분인수 및 투자 등의 자문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싱가포르 사무소는 싱가포르 밀레니아 타워(Millenia Tower)에 위치해 있으며, 동남아시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은용 변호사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7년간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국내 기업들의 각종 투자와 인수합병, 건설, 부동산, 금융 거래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또한, 싱가포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에반테오 외국변호사가 현지에 상주하며 긴밀한 소통을 돕는다.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인 양은용 변호사는 “앞으로도 본사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현지 기업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 컨셉인 “Bringing Korean Law to you” 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고객들께 가까이 다가가며 싱가포르 사무소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업무를 더욱 확대해 갈 태평양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미니 인터뷰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에게 ‘싱가포르 사무소’에 대해 묻다

Q.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개소 초기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거나 출장을 가는 것 등에 많은 장애요소가 있었습니다. 개소 2주년을 맞아 밀레니아 타워(Millenia Tower)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고, 현지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인력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Practice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고객과 업무의 경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Q. 이번 고객초청 세미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고객초청 행사의 부제는 “Bringing Korean Law (BKL) to you”입니다.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로펌이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들이나 변호사들에게 현재 한국의 트렌디한 제도나 법률 동향에 대해서 무겁지 않은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떡볶이, 치킨, 김밥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막걸리 등을 곁들여서 말이지요.

Q. 싱가포르 시장을 기업과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요즘의 산업 트렌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의 허브(regional hub)라고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싱가포르 시장은 싱가포르와 관련된 사업이나 법률문제로 한정할 수 없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시장을 넘어 아시아와 전세계를 연결시키는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고 핀테크 등 선진 금융기법을 앞세운 금융 관련 업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포함한 각국의 부자들이 Family Office를 싱가포르에 세워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 한국 분들의 투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싱가포르 사무소의 주요 고객들은 누구인가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싱가포르 사무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법률, 규제, 준법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한국 관련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들도 주요한 고객들입니다. 물론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및 아세안 지역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분쟁 관련 업무도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태평양 사무소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싱가포르 사업 관련해서 기업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싱가포르 관련 사업은 싱가포르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국가 및 전세계로의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에 한류의 유행이 강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넘쳐나는 반면에, 한류를 지속 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 싱가포르 현지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모범적인 성공사업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

BKL,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BKL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습니다.

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합류했으며,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 받는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 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습니다. 그는 28여년간 BKL의 성장을 함께 이룬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준기 변호사의 선출과 함께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되며 **2024년부터 BKL을 이끌 새 집행부가 구성**됐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BKL에 합류하여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고 있고,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2001년 태평양에 입사하여 건설·부동산 부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BKL,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BKL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BKL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6년 간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ALM에 따르면 지난해 BKL이 벌어들인 매출은 3억 570만 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입니다. 글로벌 순위로는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BKL이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디지털금융·AI·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자문 플랫폼 구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BKL은 MENA TF를 출범하고, 중동 현지로펌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등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BKL은 2022년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 ‘올해의 딜(The Best Investment and M&A Deal of the Year)’상 및 3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The Best Advisory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글로벌 로펌들과 함께 현지에서 최상위 로펌(Tier 1)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전문팀’ 신설

BKL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최적의 전문팀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국내 로펌 중 최대인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BKL은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BKL은 중동·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MENA TF**와 **국제규제 및 분쟁 관련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출범했습니다.

MENA TF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 보험분쟁 등 국제중재 및 소송 업무에 정통한 **김상철 변호사**가 TF를 이끌며, 싱가포르 사무소장인 양은용 변호사와 정규상, 지용천 외국변호사가 함께 국내외 기업들의 MENA 지역 투자 관련 자문을 리드합니다. 건설·부동산 투자·PF 관련 소송·자문 경험이 풍부한 권영준·최철민 변호사를 비롯해, 핀테크·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임세영 변호사), 헬스케어(송영주 고문), IP(김태균 변호사), 국제중재소송(김홍중·배용만·김우재 변호사), 금융(김호진·홍승일·현예림 변호사)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의 출범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중재와 외교, 규제, 금융,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연구소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출신으로 한국 정부의 론스타·엘리엇·메이슨·윈들러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실무를 총괄한 **한창완(35기) 변호사**가 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BKL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통상분쟁, 국제소송 등의 복합적 제소 동향과 국제통상분쟁(WTO, FTA), 국제투자중재 절차 대응,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수립, 국제중재 비교법적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는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임성남 고문, 기획재정부 차관 및 OECD 대사를 지낸 허경옥 고문, 상공부와 대통령 비서실을 거친 표인수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미국 뉴저지주),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국제경제국장 및 OECD대표부 참사관을 역임한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과 해외 각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거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소식

· **박지영 변호사(29기)** - 2000년 검사 임관 이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에서 특수, 환경, 금융, 증권, 조세 등 다양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경험과 함께 법무연수원 교수에 이어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수사절차 관련 법령 정비 총괄 업무 등을 통해 검찰 업무 절차 전반 및 조사에서의 정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문화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지적재산권, 기술유출, 특허관련 사건 등을 수사·지휘하고, 2019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병규 변호사(29기)** - 최근까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General Counsel, 에스엠스튜디오스 Chief Legal Officer를 역임한 조병규 변호사는 소송 및 중재,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민사·상사·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기관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풍부하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민사·상사, 건설,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분야의 소송 및 분쟁해결에 관한 자문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정상훈 변호사(29기)** - 2009년 공익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네이버에 입사해 약 15년간 뉴스, 웹툰, 네이버페이, 쇼핑 등의 플랫폼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 게시중단 관련 업무,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업무, 국정감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업 관련 제반 법률 업무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창완 변호사(35기)** - 2009년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BKL에 입사하여 다양한 국제거래, 국제소송 및 해상·항공·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제투자분

쟁, 국제중재, 투자 및 통상협정, 국제상거래규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BKL에 합류하여 국제규제·분쟁 대응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 **강정희 변호사(37기)** - 2008년부터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국내외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기업결합, 부당 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및 자문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지의 컴플라이언스팀, 개인정보TF, 반독점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애플, 구글, 퀄컴과의 계약 협상 및 반독점 이슈 전반의 검토를 담당했으며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의 프로젝트 리더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 **김대현 변호사(45기)** -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과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을 쌓았고,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획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분석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결과보고서 작성기법(경찰청 수사국)을 집필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기법, 강제수사서류 작성기법 등 경찰 수사매뉴얼 제작 감수를 맡는 등 경찰수사 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선경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 한국산업은행에서 법무, 국제금융,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수행했고, 씨티은행 서울지점에서 구조금융업무를 담당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그룹에서 외국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 후 한국산업은행에서 준법감시인,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일했습니다. 박 외국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금융 전반,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인사 노무, 준법경영, 부패방지 등입니다.

•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Illinois주, Texas주)** - 텍사스 주 휴스턴 출신의 경험 많은 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 외국변호사의 주요한 업무 분야는 건설, 석유 및 가스, 소유권 분쟁뿐 아니라 에너지, 규제, 기타 상업 문제를 포함한 국제중재 및 다국적 분쟁입니다. 김 외국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수년간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김 외국변호사의 전문성과 통찰력은 비즈니스위크, NBC 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USA투데이, 미국 대법원 제출문서 및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유연갑 고문(前 한국수출입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출입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으로서 내부통제, 법무, 반부패·윤리경영, 자금세탁방지(AML) 및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유 고문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직하 1991년부터 2023년까지 32여년간 법무실, 기업개선팀, 해외투자금융부, 선박금융부 등에서 실제 수행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 **박석현 고문(前 광주지방국세청장)** -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중부청과 서울청의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22년에 이르는 오랜 국세행정 경험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캐나다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박 고문의 강점입니다.

• **진희선 고문(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서울시에서 도시, 건축, 재개발, 건설안전 분야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주택건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진 고문은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삼성동 종합운동장일대 국제교류복합단지, 영동대로통합역사, 창동상계 바이오복합단지, 마곡 문정지구 등 대규모단지 개발에 참여하였고, 반포센트럴시티, 제2롯데월드초고층, 현대차사옥부지 사전협상 등 도시건축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 **김상석 고문(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25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 개발 및 토지수용, 도시 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부동산금융(리츠), 철도 및 도로 건설 및 안전관리, 자동차 관리 및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한 건설교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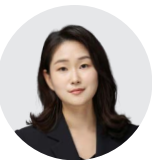
수상소식

• 2023년 변호사평가 ‘베스트로이어·라이징스타’ 최다 23명 선정

베스트로이어	공정거래: 김홍기, 신사도 변호사 국제분쟁·해외업무: 권대식 변호사 국회·대관: 최석림 변호사 보험: 안종민 변호사 부동산·건설: 범현 변호사 중재: 한창완 변호사 정보보호: 강태욱 변호사 준법경영·ESG: 송진욱 변호사 중공업: 배정환 변호사 지식재산권·특허·상표: 강기중 변호사
라이징스타	공정거래: 김규식, 권도형 변호사 국제분쟁·해외업무: 배용만, 김상철 변호사 국회·대관: 권소담, 경기동 변호사 의료·바이오: 안효준 변호사 인사노무: 구교웅 변호사 중재: 김상철 변호사 정보보호: 이강혜 변호사 준법경영·ESG: 최진원 변호사 지식재산권·특허·상표: 이재엽 변호사 AI·테크·가상자산: 김도엽 변호사

•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BKL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BKL 노은영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이 선정됐습니다.



• 김상철 변호사,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 선정

BKL 김상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ALB에서 발표한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3)’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는 한 해 동안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됩니다.



Stay in touch

BKL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조사 및 소식
- 연락처/정보변경
- Job offering

Contact

김 지 현 변호사

T 02.3404.0180

E jihyun.kim@bkl.co.kr

김 지 나 책임 | 기획실

T 02.3404.0872

E alumni@bkl.co.kr

편집 및 디자인 | 홍보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T** 02.3404.0000 **E** bkl@bkl.co.kr **www.bkl.co.kr**

© 2023 BAE, KIM & LEE LLC. ALL RIGHTS RESERVED.